

## 『월드뷰』가 만난 이달의 인물

# 영등포 쪽방촌 광야교회 이야기

편집자 주: 오늘날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가 관여하는 복지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올해 429조원의 예산 가운데 146조2천억 원을 보건·복지·노동 예산으로 편성해 전체 예산의 1/3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에는 이 비중이 3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복지국가 시대에 교회는 구제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복지를 국가에 맡기고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국가 기관이 일방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주의적인 구제 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구제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광야교회를 선정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임명희 목사는 아세아연합신학교(ACTS)와 합동신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를 소윤정 교수가 만났습니다.

**인터뷰** 소윤정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한세대학교 신학과 졸업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AIGS M.Div.Th.M(2003년)과 Ph.D.(2008년) 과정을 마쳤 다.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선교대학원 교수로 아람선교학을 전담하면서 아람문화연구원을 맡아 사역하고 있다.

### Q.소윤정

목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독자들을 위해 이 영등포 쪽방촌에 광야교회를 개척하시게 된 동기나 신학적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 A.임명희

제가 ACTS에 다니던 87년 6월 무렵 ‘육지어부’라는 모임을 만들어 전도 다니던 중에 청량리에서 노숙인들을 만났습니다. 어디에 사냐고 물었더니 영등포 골목에 산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학생이어서 돈이 없었습니다. 방학 동안 노동을 하며 번 돈으로 쌀과 치약, 칫솔 등 생필품을 준비해 이 동네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대낮인데도 길에서 쓰러져 자

고, 오랫동안 씻지 않아 더러운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 아무데서나 서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이런 곳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 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눈물이 났습니 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서른 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6-37절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말씀을 통해 ‘네가 여기서 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그때부터 묵묵하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세로 이일을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 Q.소윤정

광야교회의 실천사항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주다가 망하자’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A.임명희

예수님께서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셔서 목숨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주 속에 십자가의 재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망함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 그 은혜를 입고 내가 구원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주다가 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이 대단해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처럼 모든 것에 생명을 전달하고 하늘의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본분이므로 가진 것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다가, 주다가 줄 수 없으면 망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분들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쪽방에 사는 분들이 방세를 못 내서 쫓겨나면 노숙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마음속에 들어가 내면이 영적으로 세워지면, 홀로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1989년 크리스마스 때 부터 190여 명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무렵부터는 50여 명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콩나물을 키워 팔아 돈을 마련해 하루 세끼 밥을 주다 보니 외환위기 때는 150여 명이 여기서 생활을 했고 하루에 1,600여 명이 매일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20Kg 쌀 16포대씩 밥을 했는데 한 달에 쌀값만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하는 심정으로, 쌀이 없을 때

는 라면으로 버티면서 제 아내와 시장통에 가서 시래기 주워다 국 끓이고, 상인들이 버리는 수박도 주워 상한 부분만 잘라내서 나눠주고, 함께 장사 나가고, 노동일도 하면서 일주일에 17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길이 보이고 비전이 세워지고, 비전이 세워지면 나아갈 방향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자기를 세워나가면 어려움을 헤쳐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세속을 돌파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적인 본능을 따라서 아무 준비도 없이 살다가 늙고 병들고 힘 떨어지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게 되고 결국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기초적인 복지과 의료복지도 필요하지만 이 정도에서 멈추면 이들은 절대로 홀로서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차근차근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냐고 불평을 하면서 예배 없는 날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광야교회는 논산 훈련소보다 힘들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도 해야 하고, 노동일도 해야 하다 보니 일반 교역자들이 여기 오면 버티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같이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나눠 주고, 예배드려야 하고, 일해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전도 나가고 이렇다 보니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정말 버티는 게 대단합니다.

## Q.소운정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전문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A.임명희

제일 먼저 급식 사역입니다. 하루 세끼가 제공되고 있으며 매일 7-800여 명이 식사를 합니다. 두 번째 사역은 쉼터, 홈리스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부모도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자기도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노숙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살지 못했던 사람이 여기에 와서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자기같이 모나고, 말 안 듣고, 맘대로 하면서 살아온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한 방에서 생활하며 원치 않는 새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축을 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결혼도 시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임대주택으로 내보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홈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쪽방 동네는 윤락가, 우범지대, 슬럼가에 형성된 곳입니다. 예전에 파출소에 가서 조사받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40군데나 찢려 사흘 만에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험한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를 보살피고 섬기고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이 동네 살면서 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일일이 계속해서 만나러 다니다 보니 초창기에 나를 끌어내서 밟았던 야마위 패거리들도 지금은 전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윤락여성, 인신매매범, 전과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별들의 고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 구성원을 만들었더니 동네 건달이 저에게 “내가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지. 이 음지에 들어와서 버티고 교회를 세우고. 이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이  
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알바트로스'라는 야학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네는 지금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젊은 사람들은  
초, 중, 고 검정고시를 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검정  
고시를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공부시켜서 대학을  
보내고 지금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서 2명이 공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워지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운영하는 것 중 하나가 '돈키호테  
카페'입니다. 제가 돈키호테를 굉장히 좋아해서 13  
번째 사도라고도 합니다. 투구를 뒤집어쓰고 창을  
들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가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  
합니다. 무모한 돈키호테도 갔는데 복음을 들고 있  
는 우리가 가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카페 이름을 돈키호테로 지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커피  
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저분들이 따뜻하게 쉬면  
서 몸을 녹이고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잔할 수 있  
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  
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몇 년을 기  
도만 했는데 어느 날 한 친구의 아이디어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붕을 덮고 그 안에 카페를 만들었습  
니다. 이 친구도 실은 미국에서 추방되어 한국에 돌  
아온 범죄자였는데 이곳에 온지 1년 반 만에 검정고  
시를 통과하고 ACTS에서 공부한 뒤 현재는 우리 교  
회에서 루마니아 선교사로 파송한 분입니다. 그렇  
게 카페라고 만들었지만 무허가 시설이다 보니 어  
떻게 알고 관청에서 감사를 나왔습니다. 1년에 250  
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사

람이 한 달에 천명이 넘으니 그리 비싼 것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성에서 중독자 치료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결국 맨 마지막  
에 씨름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중독의 종류도 굉장  
히 다양한데 그들을 어떻게 치료할지 여러모로 시  
도를 하면서 음성에 치료원을 만들어 중독자들이  
생활하도록 하고 관리자를 세워 운영하며 복음전  
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Q.소윤정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사람은 미워도 다시 한번!  
버티기를 잘하자!' 이런 실천사항을 넣으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힘든 여정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은 무엇이었습니까?

### A.임명희

제 안에서 부활 생명의 힘이 저로 하여금 계속 광  
야로 나가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게 주신 생명은 세상을 뚫고, 죄악을 뚫고, 죽음을  
뚫고, 어둠의 마귀 세력을 뚫고, 광야에 있어도 전  
진하게 하는 그 어떤 세력도 돌파해내는 활동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  
에서 저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에 전도를 나가고 화요일 밤 자정 역전에서 전도하  
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음성에 중독자들 집회를 가  
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정기예배를 드리고 금요  
일 저녁에는 영등포 역전 광장에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방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내가 어  
떻게 이렇게 살지? 어,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사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칼에 맞아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 수가 없습니다.

**Q.소윤정**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사례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A.임명희**

많죠. 한때 기동서방이었던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젊은 날에 사는 게 힘들어서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갔어요. 죽으려고 한강에 가 보신 적 없으시죠? 다리 위에서 강을 내려다보면 엄청 높아요. 술을 잔뜩 먹고 뛰어내리려고 강 아래를 내려다보면 너무 높으니까 겁이 나서 못 뛰어내립니다. 그때 등 뒤에서 그 사람을 툭툭 치면 “너 뭐야?” 하며 돌아봅니다. “실은 나도 뛰어내리려고 왔는데 당신도 못 뛰어내리는 것 같으니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술 한 잔 합시다”하고 여기에 데려왔습니다. 합동결혼식을 2002년경부터 했는데 이 분이 결혼할 때 동네 건달들이 “야! 네가 결혼을 해서 1년 이상 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쭉 17여 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분이 길에서 커피 장사를 하며 한 잔에 300원하는 커피를 팔아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마음먹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선교헌금 30만 원, 구제헌금 50만 원, 광야인의 날 행사에도 50만 원씩 헌금을 하는데 3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50만 원을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10년을 돌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커다란 대야에 소주 7병을 부어 마시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 친구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가슴에서 답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건달들이 “목사님 그놈 살아있어도 사람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날 수 있어.' 이런 말씀이 내 가슴속에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Q.소윤정**

목사님께서서는 사명을 받으셨지만 사실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 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족사항은 어떻게 되시고 가족들과 어떻게 비전을 공유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임명희**

저는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CCC 출신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동네를 보여주고 함께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모든 일을 이해해주고, 콩나물을 키워 팔러 다니고 또 부족하면 시래기 주워서 밥하고, 이런저런 사람들 상담도 해 주고, 쌍갈 차고 돌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도 있었고 칼을 뽑아들고 막 쫓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밤에는 현관문을 따고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을 제 아내가 전부 참아주고 견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며 노숙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지만 아내와 애들은 걱정이 돼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많이 나는 부분인데 애들만 두고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애들끼리 놀면서 한 녀석은 칼 들고 나가서 놀고 또 한 녀석은 망치 들고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길을 가다 보면 애가 막 땅에서 뒹굴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동네 아저씨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맹모삼천지교라는 말 떠올랐습니다. 그런 속에서 애들을 키웠는데도 믿음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이제는 아빠,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가족이 모두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비전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일을 아이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Q.소윤정

지금 한국 사회는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A.임명희

저는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보

는 것이 복지, 동성애 그리고 또 하나가 중독입니다. 술, 경마, 마약, 야동, 도박, 게임, 방탕의 중독 이런저런 중독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독버섯처럼 여기저기 도사리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중독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짐승이 되어 거대한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모든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공격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주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무차별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가 시행될 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지가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법제화가 되면 복음을 전부 막아버려 결국 복지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벽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교회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도권에 복지를 쥐 버려서 정부, 구, 시 이런 곳으로 복지가 모두 넘어가버렸습니다. 복지가 법제화 되어서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



성애자들이 성적 취향과 성 평등을 내세우며 동성애에 반대되는 주장을 못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제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경우 조금이라도 강제성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인권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되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를 전부 제도권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복지가 있습니다. 진짜 복지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 속에 있는 영혼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지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복지를 교회가 해야 합니다. 세상 사회가 하는 복지를 교회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복지, 예수님의 복음 복지를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복지와 교회 복지와의 싸움입니다. 교회복지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면서 진짜 복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권에서 하는 것은 놔두고 1:1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불교나 천주교, 꽃동네에서도 이곳에 와서 밥을 주고 있습니다. 불교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있고 심지어 천주교는 치아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고가의 치료는 해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랑하라고 말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는데 정작 필요한 도움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천주교에서 치아를 해주니 여기 있는 형제들이 거기에 신청을 해 왔습니다. 신청하면 3개월에서 1년도 기다리는데 한 분이 자기 순번이 와서 상담을 하러 갔더니 이를 해주는 대신 천주교로의 개종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 이빨 안 해. 나는 예수 믿어. 개종 안 할 거야."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얼마

나 멋집니까? 그래서 제가 이를 해주기 위해서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로 개신교가 사랑을 말한다면 이런 것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제도권에서 하니 잘 되겠지.'하고 국가에 맡겨버리면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복음으로 교회가 교회 복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믿습니다.

### Q.소윤정

한국교회가 구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국 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A.임명희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이에서 피가 나오고 정액에서 피가 나오고 입에서도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같이 밥을 안 먹고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돌본다고 교회가 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에 빠져 이렇게 된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모든 죄인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깨어야 합니다. 욕먹고, 밟히고, 뺨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 수 있으면 목사하고 그렇지 않고 편하게 하려면 목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바친 것처럼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도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행동과 실



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생들도 말만 하지 말고 여기 와서 봉사도 하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좀 해야지요. 사변주의 신학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좋은 신학을 갖고 있으면서 행동까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수들이 먼저 실천을 하고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ACTS의 장해경 교수님은 우리 교회 나오신지 한 7, 8년 됐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기 전부터 사모님과 교회에 나오시면서 말없이 모든 집회에 참석하시고 동네를 돌면서 전도하시고 헌금도 해주십니다. 몸소 실천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험하지만 또 우리 동네에 이런저런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여기 와서 봉사하고 쪽방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리 밑에 가서 전도하고, 배식봉사하고 이들과 얘기도 나누고 노숙체험도 해보고 하면 영적으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나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3

년 동안 피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회고록을 보면 그때 자신이 가장 영적으로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럽에 페스트가 퍼져서 금지 구역 안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칼빈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금지선을 넘어서 들어가 기도해 주고 돌보다가 죽으면 사비를 털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을 존경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목회에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개혁주의자 칼빈이 진짜 그런 생명목회를 했습니다. 제네바로 돌아온 다음에는 박해받는 개신교도들이 피난민이 되어 갈 곳이 없을 때 복지회관을 만들어 그곳을 임시 숙소로 쓰면서 치료해주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복지 기관으로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복지를 일반 복지에서는 외면합니다. 우리는 이 동네 복음화가 목표입니다. 우리는 노숙인, 중독자들을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고 있습니다.



### Q.소윤정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지의 영역을 국가가 대신하게 되면서 점점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결국 교회가 탄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장기적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배드리는 것을 인원위원회에 제소해 조사한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 A.임명희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옥 가면 가고, 죽어야 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매일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화요일 밤이면 우리는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밤 12시에 전도 집회를 합니다. 금요일엔 역전 광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시끄럽다고 신고를 합니다. 하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파출소 소장

이 저에게 “목사님 이제는 역전 전도는 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나를 똑바로 보세요. 내가 누구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저를 잡아서 넣고 싶으면 넣으세요. 내가 잡혀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다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 Q.소윤정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힘이 납니다. 교회가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